

초, 중등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과 방향성 연구*

김 화 숙**

Abstract

The Study on separation of dance curriculum is a precondition to dance education normaliz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im, Wha-suk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concrete basis for an answer to a question why the separation of dance curriculum is required for normalization of dance education. To this end, we investigated problems of dance education that is being carried ou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under the current 7th curriculum in Korea and examined the trend of global art education.

Since dance is currently treated as a part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from the thi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high school, it can hardly achieve its original goals. Dance classes are taught by teachers with physical education teaching certificates; therefore, it is less likely for dance education to achieve its specific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iming at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rt must be made a compulsory course, not an elective course. All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taught art education. Dance, which is now handled in physical education subject, should be made independent as an art course, and it should be taught by dance specialists.

When the following problems of Korean dance education are institutionalized by administration system, we could expect normalization of dance education.

1. Separate dance subject and adopt 'art'(dance, fine art, music, play) as every citizen's common subject.
2. Establish the nation's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 원광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3. Introduce an independent system of 'dance teaching certificate' for dance department graduates.
4. Operate a 'dance-exclusive teacher system' in elementary school.
5. Revise statutes concerned(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The current climate for education overly stressing scientific knowledge for production is apt to give rise to students' emotional deprivation. Art education, which is like fresh-water to them, will be able to pull out their potentiality that is hidden deep inside and to develop their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and their creativity. Furthermore, it is educators' responsibility that provides students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receive a richer and more practical education by approaching diverse cultures and arts of their historical inheritance.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of experiencing diverse art genres through school education is a paradigm for a new art education that is essential in this age and a demand fo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I . 서 론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활력을 잃은 까닭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가치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또한 영상화되고 기호화된 이 세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천재의 독점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실현적 가치이고 문화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서도 예술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예술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미래에 대한 준비로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예술과목이 수능과목에 밀려 기피과목으로 까지 전락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예술교과는 엘리트 예술교육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작품들의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빈약하고, 시대착오적인 반쪽의 예술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선택교과로서 다양한 예술과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는 제도적 틀만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을 뿐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외면한, 거의 실천 불가능한 행정적인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고정적인 지식교육에 편중된 요즈음의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감성과 체성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Herbert Read가 일찍이 주장했던 것처럼 학교교육은 근본적으로 예술적이어야 하며, 예술에서 가장 강조하는 감각성, 창조성, 자발성, 자유의 개념이 교육 속에 적절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크레파스 한통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춤 출 권리도 갖고 있다”는 H'Doubler(1977:66)의 주장처럼 이제 우리의 무용과목도 공교육 기관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체육교과의 한 단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교과로서 예술교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무용관련 각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무용교과 독립을 주장해 왔지만, 관련기관에 공식적인 문건으로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22개의 무용관련 학, 협회¹⁾가 공동으로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관련기관²⁾에 청원서를 제출(2003. 5월)하였으며, 9월에는 국정감사에서 무용교과 관련 문제가 정식으로 상정되었다³⁾. 또한 무용교과 독립 주장과 동시에 타 예술과 연대하여 근본적인 예술교육 개혁을 주장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무용교과 독립이 필요한가?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 중등 무용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예술교육의 흐름을 통하여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1)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초등무용교육학회, 대한무용학회, 무용예술학회, 미래춤학회, 무용·동작치료학회, 한국무용과학회, 무용기록학회, 한국무용사학회, 한국발레연구학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무용연구회,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현대무용협회, 현대춤협회, 현대춤연구회, 한국발레협회, 한국춤평론가회, 전국초·중등무용교사연구회, 전국예술중·고등학교무용교사연합회, 전국직업무용단연합회, 전국무용학원연합회 이상 22개 단체.

2) 청와대,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각 정당,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이재오 교육위원에 의해 9.21-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짐. 국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danceedu.co.kr)에 공개되어 있음.

4) * 한국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권기대회(2003.10.18 문예회관 미술과, 대학로)

1부/ “초, 중등 무용, 연극 교과확립을 위한 토론회”

2부/ “한국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퍼포먼스 및 촉구대회”

* 21세기 예술교육을 위한 토론회(2003.11.25, 국회 헌정회관)

II. 초, 중등 무용교육 행정체계의 구조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법 상으로는 체육에 포함되어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 중등 무용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김화숙, 2003)해 보면,

첫째, 교육 현장에서 무용은 체육교과 안에서 확실한 목표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채 각 학교에 따라서, 혹은 무용교사에 따라서 그 내용과 수준이 각기 다르게 교육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둘째,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즐거운 생활』교과서에 무용이 18%, 3~6학년은 『체육』교과서 안에 무용단원이 평균 23%로 초등학교에서는 적어도 주 1회 무용 수업이 배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급담임교사가 무용을 지도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또한 특수과목인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 전담교사제가 있지만 무용은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 고등학교에서도 무용이 독립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용교과서’ 없이 체육교과서의 무용내용(5~6%)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무용이 예술교육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신체 훈련을 위한 체육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무용을 지도하는 교사는 ‘무용교사’라는 공식적인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체육교사’로서 무용을 지도하고 있는 행정제도 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⁵⁾

다섯째,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용학급이 편성될 경우(30명 이상), 교육과정 상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비 수학적 과목의 자율적 선택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기대이고 요구이다.

종합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예, 체능교과는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어 독립된 교과가 아닌 무용은 공 교육기관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동등한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무용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초교육의 부재는 무용예술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 현재 대학 무용학과 졸업생에게는 ‘체육교사자격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조차도 12개 대학 무용과(10%)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1년에 50명밖에 배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예술교육의 방향과 무용교육

오늘날 무용은 높은 수준의 기교와 다양한 언어를 지닌 예술형태일 뿐 아니라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특수아를 위한 교육의 형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용은 표현적인 신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창작예술로 무용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예술적 요소가 무용교육의 핵심이 된다. 즉, 무용은 지적인 정신활동을 동반한 창조적인 신체 표현활동이며 신체 움직임으로 자기실현을 하는 표현교육이다. 따라서 무용은 신체 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와 감성에 깊게 관련되면서 운동교육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다.

교육으로서 무용의 영역은 신체와 상상력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Brinson(1991:69)이 주장하듯 무용은 움직임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용 창작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목표의 교과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무용교육은 예술교육 원리에 입각한 무용예술(*art of Dance*)모델⁶⁾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무용예술의 세계적인 경향은 미국 무용교육 국가표준인 K-12 프로그램(NDA:1994)⁷⁾, 영국의 체육교과 안의 무용 프로그램(Smith-Autard:1994), 그리고 일본의

6) 1972년 Betty Redfern에 의해 제안된 무용예술(*art of dance*)모델은 거의 15년 이상 개발되었으며 무용예술 혹은 예술로서의 무용(*dance as art*)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영국의 Smith-Autard가 *Dance Composition*이라는 저서에서 1976년에 제안하였으며 Gulbenkian 재단 보고서인 *Dance Education and Training Britain*(1980)에서 강력히 지지되었던 모델이다. 또한 영국의 1992년도 국정 교육과정에서 공인된 연구 프로그램에 명시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제안한 무용이론가 중의 한사람이 Redfern이었으며 이 모델이 나오기까지 근원을 제공한 사람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어린이-중심적' 접근을 주장했던 Laban(1940년대)의 아이디어로부터 도출되었다. 스미스-오타드는 이 무용예술 모델을 토대로 그의 저서 *The Art of Dance in Education*(1994)에서 절충모델(*midway model*)로 제시하였다.

7)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무용교육개혁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1994년에 '목표 2000: 미국교육개혁법(The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이 통과되면서 국가적인 예술교육(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 기준이 발표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예술교육연합회 산하단체인 NDA(National Dance Association)는 무용교육을 위한 국가적 기준 틀(K-12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의 핵심은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치는데 있으며 학생들이 단순한 발표의 차원을 지나 스스로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안무의 원리, 과정을 통하여 무용의 역사적, 문화적,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은 ① 공연무용에서 나타난 기술과 움직임 요소를 확인하고 실행하기 ② 안무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기. ③ 의미를 전달하고 창조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무용을 이해하기. ④ 비평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운동기술을 무용에 응용하고 실행하기. ⑤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서 무용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⑥ 무용과 건강한 삶을 관련시키기. ⑦ 무용과 타

마츠모토 치요에의 창작무용 수업모형(1997:31)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창작(creating), 발표(performing), 감상(appreciation)을 통해 예술적 교육, 미적 교육, 문화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예술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 현 시대의 무용 및 예술교육자들은 무용과 예술을 각 계 각층에 완벽하게 포함시키고 우리 문화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Cardinal(1995:28)의 견해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예술은 학교교육에서 주요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예술을 핵심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예술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에 포함되어있다.

- ▶ 미국은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으로 승인·공포된 『목표 2000 : 미국 교육개혁법』(The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청소년들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8개 과목(영어, 수학,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과학, 외국어, 예술)을 핵심교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예술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술교과는 다시 4개 교과 즉 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로 세분화되어 이 연방법에 적용되는 미국의 청소년들은 12학년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마치게 될 때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4개 부분의 예술 교과를 이수해야 하며, 적어도 한 부분의 예술 형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량과 실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1989년에 발표된 『미국 2000: 교육적 전략』에서는 예술이 빠져 있었으나 그 이후 예술계가 규합⁸⁾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1994년 『목표 2000: 미국교육개혁법』 목표 3항에 예술 교과가 채택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예술이 핵심교과에 포함되었다.

- ▶ 또한 프랑스는 의무교육 연령인 만 16세에 누구나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국민 공통분모로서의 필수지식을 갖추기’에서 여섯 가지 기초지식을 규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체단련과 예술감각’이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자크 랑(Jack Lang)이 2000년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학교 내 예술·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여 1단계인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K-12)까지 과정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비전과 성격

교과를 관련시키기(NDA, 1994:19-26).

8) 무용협회, 음악교사협회, 연극교육연맹, 예술교육협회

을 규정하는 5개년 계획의 제목에서 문화보다 ‘예술’을 앞세운 점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뉴질랜드는 교육개혁 틀 내에서 예술은 7개의 필수 학습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술은 무용과 드라마, 문학, 음악, 시각예술(공예와 디자인을 포함), 영화, 그리고 웅변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정규교육과정은 예술, 국어, 체육, 제2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환경, 기술 등 8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 과목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의무교육 기간동안 교육된다(안정임, 전정란, 2003:276. 재인용). 따라서 예술교과에는 무용, 드라마, 그래픽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음악, 시각예술의 6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 스웨덴의 경우에도 다음 8개 과목 즉, 영어, 예술, 체육과 보건, 수학, 과학, 종교, 스웨덴어, 민주시민학 과목이 우리의 국민공통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예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 ▶ 영국의 경우에는 무용교육 체계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구조(K-9학년 무용이 ‘체육’교과에 포함)를 갖고 있으나 고등학교부터는 ‘무용’을 독립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GCSE(Secondary 졸업시험)에서 무용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용수업이 상당히 심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 시험성적이 대학입학시험에 반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용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무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IV. 무용교과 독립의 가능성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따라서 ‘무용’은 어느 교과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술과목의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무용은 ‘특수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용’으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의 동등한 기회부여의 차원에서도 누구나 무용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즐겁게 살 행복의 권리를 갖고 있다. 오늘날 무용은 높은 수준의 기교와 다양한 언어를 지닌 예술형태일 뿐 아니라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활동으로서의 사회교육의 한 분야이며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특수인이나 사회의 법률적 제재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까지도 무용의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예술복지가 들의 주장이다.

1. ‘무용’ 교과 독립의 당위성

일찍이 무용은 체육과 관련되어 예술형태의 무용이라기보다는 편리성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교육자와 행정가의 관념에서 시작되었다고 Brinson(1991:60)이 지적했듯 교육무용의 가장 큰 모순은 예술로서의 무용이 아니라 체육으로서의 무용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물론 무용이 체육교과의 목표달성에 바람직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교육무용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무용은 예술인가, 체조인가, 무용은 실제로 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고 그것들 모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일찍이 John Martin(1965:205)은 무용의 모호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무용이 신체훈련만을 의미한다면 무용은 체조와 다를 바 없다. 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 자체를 단련키는 것 뿐 아니라 단련된 신체로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에 있다.

무용과 체육은 둘 다 <인간- 신체- 움직임>이라는 인간신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탐구, 움직임에 대한 자각 등 함께 연구해야할 기초과정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무용과 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무용은 표현적인 신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창작예술인 것이다. 즉 무용에서 다루는 신체는 체육교과에서 다루는 신체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육무용에서의 동작은 창조적, 표현적, 신체적 목적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며 표현적인 움직임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나 체조에서는 움직임 안전을 위한 창조적 신체동작으로 사용되거나 기구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동운동의 목적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는 이동운동과 신체기술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Briggs,1974:10-20). 즉 무용은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표현적인 반면 체조는 창조적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체육교과로서의 무용은 예술형태로서의 무용개념이 무시되거나 회피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어로빅, 사교댄스 같은 비 창조적인 대체물을 제공받게 되며 인간 움직임을 통한 미학적 접근의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무용은 체육이나 연극과 같은 넓은 교육의

영역에 종속되거나 이보다 열등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무용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해야 한다(Gray, 1989:90).

중, 고등학교에서의 창조적 예술경험은 미술·음악·무용·연극 등의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Kraus & Chapman, 1981:353). 체육으로서의 무용은 예술형태에 대한 입문으로 적절한 교육형태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용은 예술형태로 인식되어야 하며 연극, 음악, 또는 미술과 같이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고 Brinson은 교육무용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Laban의 철학과 원칙은 교육에서 예술의 한 형태로서의 무용개념에는 커다란 손상을 끼쳤다(Brinson, 1991:65-66)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무용교육자들은 현재 체육교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용수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무용교과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왜 무용이 체육안으로 단순히 흡수되어서는 않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무용의 교육적 가능성이 가지는 독특성에 있다. 이 독특성은 바로 예술교육이 제공해야 할 정서교육에 있다고 Mcfee(1994:71-76)는 Brinson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가능성이야말로 무용교육의 핵심이며 예술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무용이 체육교과와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용교육과 관련된 네 개의 단체 즉, 무용교육 및 훈련협회(CDET), 국립고등교사협의회(NATFHEE:무용분과), 국립무용교사협의회(NDTA), 고등교육무용협의회(SCDHE)에서 국정교육과정에 무용을 체육과 연관시키는 제안에 반대하는 논쟁과 강력한 기록을 만들었다(1989). 이 단체들의 공동문서(HMI)⁹⁾는 무용은 국정 교육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예술과 같이 무용도 체육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서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전달하고 조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기본적인 교육매체로서의 무용은 개인을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서 다룬다. 무용은 테크닉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인성 모두를 요구한다(Brinson, 1991:74).

“모든 예술 가운데 개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특히 적합한 것은 무용이다. 무용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무용은 신체발달을 촉진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지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심미안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서를 심화시켜주고 세련되게 해준다(H'Doubler, 1957:75). 따라서 무용의 가치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정신적 발달과 함께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며 또한 이 전체를 통합하는 전체성(totality)에

9) HMI : Her Majesty's Inspectorate

기여한다. 교육무용 이외에는 어떤 다른 활동도 균등한 세 부분의 인격을 똑같이 강조하고 통합하여 조화시켜주는 것은 없다(John Martin, 1965:204). 바로 이점이 무용교과가 독립해야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2. 교육과정에서 무용의 기능

무용교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무용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립된 교과로서 교육무용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예술적·미적 교육, 개인적·사회적 교육, 신체적·움직임 교육, 문화적 교육, 통합 교육과정 학습, 취업 전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Brinson: 1991:161-16, Gulbenkian재단:1989, Overby:1992) 교육무용의 목표달성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표. 1 무용의 교육과정 기여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예술적·미적 교육	지각적 기술개발 창조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창조적 표현능력개발 비평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개발 예술형식을 창조하고 감상할 기회제공 삶을 관조하는 태도양성
문화적 교육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형태의 접근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 문화의 전승과 변화과정 소개 문화적 능력 현재의 가치관과 역사적 힘의 관련을 통한 문화적 시각의 확대
개인적·사회적 교육	자아인식, 자아표현, 자기존중의 기회제공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육성 개인과 집단작업을 통한 자신감과 자긍심 함양 협동과 팀웍 개발 공동사회의 이해증진
신체적·움직임 교육	신체와 움직임자각을 통한 동작의 지각력 조절 신체적 자신감과 가능성 습득 움직임을 통한 감정전달 문제 해결력 향상 자신의 생활과 체력을 통제하는 능력개발

항 목	내 용
통합교육과정 학습	움직임과 시각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술개발 협동적 교수와 학습전략의 장려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학습발달 언어발달을 강화 사회적 태도와 가치고려를 위한 내용제공
취업 전 교육	평생활동으로서의 가능성 제시 지역사회에서의 무용의 방법을 제시 무용과 공연예술, 오락과 여가산업에 있어서 전문훈련의 방법을 제시 학교교육을 통한 창조적 충동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유지하는 방법 제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개발

(김화숙, 1996:60)

3. 무용의 교육적 혜택으로의 접근

무용은 표현적인 신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창작예술로 무용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예술적 요소는 무용교육의 핵심이 된다. 즉, 무용은 지적인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인 표현활동이며 신체 움직임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실현의 표현교육이다. 따라서 무용은 신체 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와 감성에 깊게 관련되면서 움직임 교육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다.

무용교육은 인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도와주며 동시에 이 전체를 통합하는 전체성(totality)에 기여한다. 즉 무용은 인간자체를 다루는 학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무용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이야말로 무용교육의 핵심이며, 예술적 중요성이야 말로 무용이 체육교과와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무용교육의 흐름은 ‘무용예술교육’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과목은 핵심교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무용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다.

1. 21세기 핵심교과로서의 ‘예술’

- 모든 국민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 예술교육은 웰니스(wellness)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예술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 따라서 예술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다.

2. 예술교과로서의 ‘무용’

- 무용은 창조적 표현활동이며, 자기실현의 표현교육이다.
- 무용은 상상력과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다.
- 무용은 감성개발을 위한 기초교육이다.
- 무용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다.

3. ‘무용’의 교육적 가치

- 무용은 인간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 무용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다.
- 무용은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 무용은 이 전체를 통합하는 전체성(totality)에 기여한다.

4. ‘무용’의 교육과정 기여항목

- 예술적, 미적, 문화적 교육
- 개인적, 사회적 교육
- 신체적, 움직임 교육
-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학습에 기여한다.

그러나 무용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교육적 혜택은 무용이 예술교육 안에서 교육되어 질 때만이 실현 가능한 것이다.

V. 결 론

이제 전인교육을 위한 초, 중등교육에서 예술은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체육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무용’은 당연히 예술교과로 독립되어야 하며, 또한 무용교육은 무용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용교육은 다음 문제가 행정적으로 제도화 될 때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무용교과 독립과 함께 ‘예술’(무용, 미술, 음악, 연극)을 국민공통과목으로 채택

2. '무용교육 국가표준'의 제정¹⁰⁾
3. 무용과 졸업생에게 독자적인 '무용교사자격증'제도 도입
4. 초등학교에 '무용전담교사제' 시행
5.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오늘날 생산을 위한 과학지식의 학습은 사회를 보다 풍부하고 편리하게 변화 시키는 생산수단을 습득한다는 가치를 지닐 것이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간 행동으로의 실천을 위한 인문적 지식은 문자나 언어를 통한 인식적 학습만으로 습득할 수 없다. 생산을 위한 과학지식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학생들에게 단물과도 같은 예술교육을 통해 그들의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표현력과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역사적 유산에 접근하게 하여 보다 풍요롭고 실천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교육자들의 몫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며, 21세기 교육의 요청이다.

참고문헌

- 김화숙(1991), “무용교육 개혁의 긴급성”, 무용교육연구회, **무용교육연구 창간호**.
- _____(1996), “교육으로서의 무용” 한국무용교육학회,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 _____(2000), “초등학교의 창작무용 학습을 위한 내용구성과 지도 모형”,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11집 1호**.
- _____(2001), “중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창작무용 학습의 내용과 지도모형”,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12집 1호**.
- _____(2002), “제 7차 교육과정 무용내용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13집 2호**.
- _____(2003), “지금, 우리 학교의 무용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예술교육 개혁을**

10)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K-12)까지 **예술교육 국가표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예술교육의 큰 틀에 따라 **무용교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만 하는” 무용교육 내용기준과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위한 무용·연극 합동토론회 자료집, 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 마츠모토 치요에(1997), “무용창작학습의 모델과 그 전개”,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4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57-74.
- 안정임, 전경란(2003), 미디어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의 방향, 한국언론재단.
- 차정원(1994), “국민학교 무용교육의 현황분석과 개선책”,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Briggs, M(1974), *Movement Education*, London: Macdonald & Evans LTD.
- Brinson, P(1991), *Dance as Education Towards a National Dance Culture*, London: The falmer Press.
-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1989), *The Arts in Schools*, London, 36-47.
- Cardinal. M(1995), “Dance in Higher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e”, 무용교육영역확장을 위한 방향모색, 한국무용교육학회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7-36.
- Gray, J(1989), *Dance Instruction*, Champaign: Human Kinetics Books.
- Hanna, J. L(1999), *Partnering Dance and Education*, Champaign: Human Kinetics.
- H'Doubler, M(1957),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raus, R & Chapman, S. 무용, 역사를 통해본 그 예술성과 교육적 가치, 홍정희(1985, 譯), 서울: 성정출판사.
- Laban, R(1974), *Modern Educational Dance*, London: Macdonold & evans.
- Martin, J(1965), 무용입문, 장정윤(1994, 譯), 서울: 교학연구사.
- Mcfee, G(1994), *The Concept of Dance Education*, London: Routeedge.
- N.D.A(1994), *National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 Reston: A Dance Horizons Book.
- _____(1995a), *Dance Education - What is it? Why is it Important?*, Renton:NDA.
- _____(1995b), *Opportunity -to -Learn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 Reston: NDA.
- Overby, L(1992), “Status of Dance in Education”, DIGEST, ERIC Clearinghouse on Teacher Education.